

안전을 지키면 편안해집니다.

제44호 자랑스런 안전인 경림산업(주) 고동린 전

여름의 계절이 그냥가기 아쉬워 제주 끝자락
 에 매달려 꾸물한 하늘과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경림산업(주)
 의 지나온 길이 순탄치 않은 많음을 암시하는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을 극복하며 제주지역 제조업 최초로 무재해 10배라는 수확을 거둔다. 무재해 10배는
 혼자 이룩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분명 있는 법이다. 오늘 경림산업
 (주)에도 지난 12년동안 무재해로 함께해온 고동린 전무이사를 만났다.

경림산업(주)은 26년여 동안 양질의 스티로폼 보온판 및 상자를 생산 및 판매해 옴으로써 제주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온 기업이다. 이곳에서 무려 12년 동안 한 건의 산
 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대기록을 세우며 무재해 10배를
 이룩한 경림산업(주) 그 배경에는 1978년부터 안전의 길을 걸
 어왔던 고동린 전무이사가 있다. 그의 나이 55세, 안전과 함께
 한 날들이 반평생을 넘는다.

현장에서는 각 기계설비 및 작업공정에 따른 안전보건 유해·
 위험 요인 분석표를 만들어 각 공정과 기계에 대한 위험요소를
 철저히 파악하여 관리하여 왔다. 또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사내에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고 전원참가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했

안전관리의 시작,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다. 이를 위해 각 부서장을 팀 안전·보건책임자로, 반장이상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선임하고 소속부서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였고 좀 더 내실 있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하여 상설교육장을 개설하여 사내교육과 위탁교육을 구분하여 실시
 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지식을 높여 왔다. “중소기업으로써 우리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관리를 잘 해 나간
 다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시설이나 시스템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주위 환경이나 자원을 아쉬워하기 보다는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고동린 전무이사가 있기에 오늘의 안전한 직장 경림산업(주)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앞으로도 끊임 없는 도전과 안전에 대한 열의로 제주 제조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를, 또 제주지역 안전인동호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해 본다. 

〈임재근 기자〉